

# 여수시-주민 소제지구 공영개발 갈등

### 주민들 "44년동안 재산권 묶여 피해...자체 개발 허용" 촉구 설명회 연 市 계획대로 공영개발 강행...보상 절차 돌입키로

여수시가 추진 중인 소호동 소제지구 공영개발과 관련, 마을 주민들과 여수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0일 여수시와 소제지구개발대책추진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소제지구는 지난 1974년 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부지로 첫 지정·고시한 후 지금까지 개발이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주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2017년 9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75% 주민·지주들이 동의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한지방식 요건 충족) 자체 공동개발(지주) 결정을 내렸지만 여수시는 본래 계획대로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1974년 당시 주요 생계 수단인 가족 축사 등을 강제 철거당하면서 지난 44년 동안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만큼 여수시가 지급이라도 주민 결정(자체 개발)에 동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지난 4월 주민들이 직접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수시를 상대로 '여수산단 배후도시 해제'와 '주민 지주 공동 개발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여수시가 44년 동안 수차례 약속했던 보상을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85세대 중 90% 가까운 주민들이 교육주택으로 내린 결정을 일부 주민들의 욕심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대책위의 최소한의 보상 요구와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자체 개발 결정을 무시한 여수시의 일방적인 공영개발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만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민대책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일 여수소호동 요트장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여수시는 향후 보상실태조사와 보상, 택지개발 등의 개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소호동 소제지구는 지난 1974년 여수산단 배후부지로 첫 지정·고시한 후 지금까지 개발이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주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제지구 일대 항공사진.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업무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며 보상 대상 세대는 124세대로 보상 규모는 7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시는 보상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계획대로 2023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지연될 소지가 있지만 본래 계획대로 공영개발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호동 41만 7654㎡에 이르는 소

제지구는 소호 요트장과 디오션리조트 사이에 있는 마을(소제·음달)로 지난 1974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지정 고시됐다. 이후 1991년 12월 18일자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돼 지난 24년동안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여수시가 수차례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했다가 무산돼 최근 여수시가 직접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1324억에 달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지난 5일 권오봉 여수시장이 '국제 섬 관광 여수포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여수시 '세계 섬 박람회' 추진

### 권오봉 시장 포럼서 밝혀

3면이 바다인 반도형 지형과 365개의 보석 같은 섬을 보유한 여수시가 '세계 섬 박람회'를 추진한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국제 섬 관광 여수포럼'에서 여수의 장점을 살려 세계 섬 박람회를 열겠다는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권 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보석 같은 섬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여수는 자타가 인정하는 천혜의 관광도시"라며 "이런 장점을 살려 섬 개발은 물론 보존을 주제로 하는 세계 섬 박람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어 "국내 관광객만을 맞이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찾고 즐기는 남해안 국제관광허브로 여수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또 "그 방안으로 신성장동력인 마이스산업 육성과 6차 산업과 연계

한 섬 생업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많이 변하고 있는 정책에 맞게 지속가능한 섬, 가고 싶은 섬을 개발해 미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섬과 마이스 연계를 논의하는 2018 국제 섬 관광 여수포럼은 지난 5일부터 3일 일정으로 '섬, 융·복합 마이스산업을 연결하다'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다.

대학생, 학계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섬 관광 정책과 방향', '섬 관광 트렌드', '국내외 섬 관광 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주제별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여수시 관계자는 "휴식을 중시하는 관광 추세에 맞춰 섬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여수의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특화 마이스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여수낭만버스 추석연휴 25일까지 추가 운행

여수시가 탑승률 100% 행진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를 추석연휴 특별 운행한다.

여수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반영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시간을 달리는 버스를 추가 운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는 시티투어와 공연, 이벤트가 접목된 여수시의 특별한 관광상품이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순신광장을 출발해 국동 어항단지, 여수시청, 소호동동다리,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종포해양공원 등 여수의 야경명소를 돌아보는 2시간 코스의 야간테마 시티투어버스다.

오픈탑 2층 버스를 타고 여수밤바다 해안도로를 달리며 야경과 뮤지컬, 버스킹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데다 사랑의 세레나데, 낭만엽서보내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있어 탑승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탑승객은 4월 27일 첫 운행부터 37회차인 9월 1일까지 159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탑승률은 5개월째 100%를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오는 10월 27일까지다. 탑승신청은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2만원, 경로·장애인·군인·학생 1만5000원, 미취학아동 1만원이다. 여수시민은 50%를 할인받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인기몰이중인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가 추석연휴 기간에도 특별 운행된다. (여수시 제공)

##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여수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대상이 고정식 무인단속 시스템(CCTV)에서 이동식 단속 차량까지 확대됐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예고하는 제도다.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은 차량이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단속범위 내 주정차해 있을 경우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았다.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은 9월 현재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 등 52곳에 설치돼 있다.

이번 알림서비스 확대로 이동식 차량의 단속범위에 있는 주정차 차량의 소유자도 단속사실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동식 단속차량의 경우 주정차금지구역 어디든지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림 서비스 확대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교통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시 홈페이지 교통정보에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14일까지 여수서 세계 어업권 국제회의

### 40개국 전문가 250여명 참여 어업권 정책 등 폭넓은 논의

국가별 어업권 관리의 표준화 등 세계 어업권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여수에서 열리고 있다.

여수시는 오는 14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18 FAO 어업권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권 회의는 해양수산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와 여수시가 후원한다.

FAO 회원국과 학계, 국제기구, NGO 등 40여개국 전문가 250여명이 참

여해 어업권을 주제로 폭넓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관습적으로 허용된 어업권과 원주민의 어업권 ▲접근이 개방된 어업과 제한된 어업 ▲연안지역에서의 어업권의 다목적 이용 ▲어업권의 사회적 측면 등이다.

FAO 어업권 회의는 우리나라가 2016년 어업권의 표준화를 위해 FAO에 개최를 제안한 행사다.

여수시 관계자는 "미래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가 어업권 관련 국제적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선재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